

IT/의학

황인준씨 '안드로메다은하' 대상

입력 2009-03-20 03:00 수정 2009-09-22 17:26



제17회 천체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황인준 씨의 '안드로메다은하' 사진 제공 한국천문연구원

제17회 천체사진공모전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한국천문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동아시아언스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천체사진공모전에서 황인준 씨가 대상을 받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시 송악면 호범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자리의 나선은하 '안드로메다은하'를 찍은 사진을 출품했다.

심사위원장인 이용삼 충북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는 "예년에 비해 수준이 한 차원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대상작은 영하 20도로 냉각한 전자결합소자(CCD)를 사용해 은하핵 팽대부, 원반 내 먼지 띠 같은 나선은하의 특징을 잘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반부에서는 김일순 씨(M13)가 금상을, 고창균(장미성운) 김삼진 씨(말머리성운)가 은상을, 박현권(캘리포니아성운) 최승용(하현달) 신범영 씨(불사조의 비상)가 동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부에서는 신용찬 군(목성과 토성)이 은상을, 김재준 군(서쪽하늘의 네 친구)이 동상을 받았다. 금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선작은 한국천문연구원(www.kasi.re.kr), 국립중앙과학관(www.nsm.go.kr), 동아시아언스(www.dongascience.com) 홈페이지, 과학동아 4월호에서 볼 수 있다. 시상식은 4월 대전 한국천문연구원 에서 열린다.

이충환 동아시아언스 기자 cosmos@donga.com

0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주요뉴스

1/3



[속보] 현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현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위헌"... 자사고 지원 늘듯

낙태죄 헌법불합치...현재 "내년말까지 법 개정"



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요연...무슨 일이?

美 의장대 '하늘색' 태극기 논란...靑 "朴정부 때도 썼다, 확인중"

"판사님, 삶을 정리할 시간 주십시오"...조양호 작년 영장심사때 최후진술

'기부의 삶'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별세...두달 전에도 500억 쾌척

文대통령 워싱턴 도착 날, 美의회서 진땀 뺀 폼페이오

이미션 판사 남편 "아내는 스마트폰도 못 다뤄...제가 주식·재산 관리"

대형 사고 터지면 걸로 걱정하면서 속으로 웃는 조직? 공무원의 고질병